



캐디·카드 선택... '착한 골프장' 늘린다

문체부, 골프 대중화 선언... 골프 인구 600만명 목표
"골프는 사치 아닌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인식 확산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와 카드의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캐디나 카드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 기금 용자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에서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 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

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드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기존 대중골프장 가운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

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반면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 기금 용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상 경기 보조원, 카드, 식당 이용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현재 5개소에서 더 늘리는 등 주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원 이하가 가능한 공공형 골프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골프 산업의 미래 향유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손쉽게 골프를 즐기도록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을 추가하고,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 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는 각종 법령과 규정도 고쳐 골프가 사치 활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같은 편이야" 19일 (현지시간) 영국 브렌트포드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7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에서 맨유 선수들끼리 엉켜 헤딩 다툼을 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맨유가 3-1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생활탁구 선전... "20대 열정 되찾았어요"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
황성빈 등 인상적 경기력

생활탁구 강자들이 국내 최고 권위 탁구 대회인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에서 선전을 펼쳤다.

20일 대한탁구협회에 따르면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 대회 남자 단식에서 생활탁구인 2명이 엘리트 중·고교생들을 꺾고 2회전까지 올랐다.

1회전에서 노제민(27)이 김준수(내동중)를 3-1(11-8 7-11 11-7 11-5)로 제압했고, 황성빈(27)은 허선범(화흥고)을 3-0(11-7 11-2 11-8)로 꺾었다.

노제민과 황성빈은 2회전에서는 실업팀 강자들을 만나 모두 0-3으로 완패했다. 노제민은 정상은(한국마사회)에게, 황성빈은 국가대표 안재현(삼성생명)에게 졌다.

그러나 황성빈이 안재현과 3세트에서 듀스를 기록하는 등 끝까지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해 엘리트 선수들을 긴장케 했다.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에서 선전을 펼친 생활탁구인 하정희 씨. 연합뉴스

여자 단식에서는 50대 노익장들이 열정을 불살랐다. 노미화(54)와 하정희(53)가 1회전에서 각각 최서영(청명중), 이채연(삼성생명)에게 졌지만,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평가가 나왔다.

종합선수권은 초등학교 선수부터 실업팀 선수까지 계급장을 떼고 한 대진표를 따라 경쟁해 그해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다.

이번 대회부터는 생활탁구인들까지 경쟁에 가세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일원화를 추진해온 탁구협회는 2020년 생활탁구에 승강제인 '디비전리그'를 도입했다.

그리고 디비전리그의 최상위 리그인 T3리그에서 입성한 '생활탁구 챔피언'에게 종합선수권 출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 하정희와 함께 출전한 '열정' 탁구클럽의 노미화는 "50대 중반에 20대의 열정을 되찾고 간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Utd 2022시즌 멤버십 회원 모집

예매 시 할인 등 혜택 제공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2022시즌 멤버십 회원을 모집한다.

제주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간 회원 제도' 대신 2021시즌부터 입장권 할인, 사은품, 입장권 선예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2시즌 멤버십은 GOLD, SILVER, BASIC 등 총 3종류로 구분된다.

입장권 예매 시 2000원 할인(1인 4매)과 제한 관중 시 선예매는 공통 혜택이며, 멤버십 전용 이벤트 기회, 멤버십 대상 프리미엄 콘서트 제공, 멤버십 카드, 목걸이, 카드케이스가 추가 증정된다.

특히 GOLD 회원에게는 2022시즌 유니폼, 한정판 머플러와 함께 별도 예매 절차 없이 경기장 입장 가능한 '나만의 좌석'이 제공된다.

제주는 지난해 12월 GOLD 회원 선 모집에 이어 20일 오후 5시부터 SILVER, BASIC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halla.com

"막강 전력... 성별 막론 경쟁력 높아"

ISU, 한국 쇼트트랙 조명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막강한 한국 쇼트트랙의 전력을 조명했다.

ISU는 20일 (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 사냥에 나선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을 소개하면서 "다른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많은 올림픽 금메달, 올림픽 메달, 세계선수권대회 타이틀을 따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자 대표팀의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강력한 메달 후보로 언급됐다.

ISU는 "한국의 영광을 위해 앞장설 선수는 최민정이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 차례나 우승한 적이 있다"며 "2018년 자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선 여자 1500m와 3000m 계주 금메달을 획득해 영웅이 됐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여자 대표팀의 기대주 이윤빈(연세대)도 주목을 받았다.

평창 올림픽 여자 계주에서 한국의 금메달 획득에 힘을 보탠 이유빈은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 여자 1500m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로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했다.

남자부에선 황대헌(한국체대)이 '한국의 큰 희망'으로 소개됐다.

ISU는 "한국 대표팀에 선발되는 게 국제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했던 황대헌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러면서 황대헌과 함께 박장혁(스포츠토도), 박윤기(고양시청)도 좋은 기량을 보인다면, 한국 대표팀이 남자 계주에서 중국과 쌍벽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ISU는 "한국은 성별을 막론하고 모든 거리(종목)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35년 전통의 산호당구재료

그동안 여러분의 고마움과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당구용품의 가격을 **할인 판매** 실시합니다.

- 개인용품들도 다양하게 준비 전시하여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직접 보시고 구입하세요. (팁,쇼크30여종 장갑 그립 및 기타 개인용품)
- 당구장 중대 천 - 25,000원 ※ 대대천도 인터넷 가격 보다 저렴 판매 (시모니스 고리나 제니스 타키니 아크 등등)
- 1회성 뜨내기 기사가 아닌 20년 이상 경력의 고정 기사가 작업합니다

제주 대리점 허리우드 당구대, 한밭큐, 빌킹큐, 고리나, 은성큐, 코리아큐, 기타 수입대대 및 각종 당구대 총판

큐 수리 공방은 2022년 1월 중순경부터 운영
(상·하대 조인트, 선골수리, 팁 부착, 기타수리)

5만원 이상 제주도 전지역 무료 배송

산호당구재료사 대표 고재철 | 주소: 제주 제주시 평전1길 30-1
TEL. (064) 757-5710, 5488 H·P. 010-3699-3967